

성수기 도계유통 문제없는가

□ 충분하다(당국) ⇔ 모자란다(생산자) □

5월

을 맞으면서 양계인들의 관심이 5.16에 쏠리고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된바 대로 정부는 일정 규모·시설을 갖춘 특급도계장에 한해서 도계품의 타시도 반출을 허용한다고 공표해놓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던 생산자들도 이 사실이 여러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시행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도계유통혁신을 일면 수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계유통에 관한 일련의 혁신적 조치를 취해놓고도 생산자나 도계업자에게 이렇다할 설득이나 이해를 구함이 없이 법 시행에만 주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생산자들은 과연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점과 법 시행후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도계유통에 관한 간담회」가 양계협회 주최로 농수산부·서울시·경기도 관계관과 생산자 대표가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도계유통 현황

(본회 황인옥 전무)

준비된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부족하거나 누락된 점을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 84년 전국 닭고기 소비실적은 2억 1천만수 규모로 이중 서울이 35~40%를 점하고있으며, 84년도에는 전국에서 2억 3천 8백만수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서울시의 1일 닭고기 수요량은 비수시기 20만수, 성수기시 32만~35만수로 1일평균 23만 5천수로 추정되며, 공

급량은 서울시 관내도계장 3개소 4만수와 특급도계장 시설 예상업체 11개소 등에서 20만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볼때, 비수시기에는 물량충당이 가능하나 성수기시에는 10만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포장육은 대부분 10℃ 이상에서 유통되고 있어 변질이 빠르며, 포장기술의 미비로 상품성이 저하되고 도계육의 장기보관이 곤란하다.

• 대부분의 도계장에서 익아침 소매점에 공급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이 폭주하는데 다 각 도계장간의 고객유치과 당경쟁으로 위생처리에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며, 결과적으로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포장육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소매상에서는 포장지를 개봉하여 진열 판매하는 등 포장육을 기피하고 있으며, 위탁상인 중에는 도계장에서 포장육을

바로 개봉하여 소매점에 납품하기도 한다.

• 이상의 문제점의 시정이 요청되는 외에 가공용, 군납용, 협소용, 단체급식용 등에는 대포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편 특급도계장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확장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건설부), 공업배치법(상공부) 등의 문제로 시설기준에 따른 증개축이 곤란하며, 도계장축의 자금부족, 시설보완 지연(시행 유보 여부 관망)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 도계유통 주체가 도계장이 아닌 다수의 위탁도계상인들로 제품 유통 및 관리에 있어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

• 5.16 이후 특급도계장 외 각급 도계장 제품의 관외반출을 철저히 단속할 경우 성수기시에 서울은 공급 부족현상이, 생산지는 체화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간담회 내용

농수산부 : 도계유통의 정착은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커다란 국제행사를 치룸에 있어 외국인에게 생계에 대한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계유통은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 등 각계가 10여년간 노력해 왔으나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계유통의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생산자 : 대전의 경우 도계장이 1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시설이 매우미비되어 포장이나 위생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산 대정식품은 시설이 좋으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포장육 유통은 실현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농수산부 : 충남에는 현재 4

개의 도계장이 있다. 대전축협은 미비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며, 천안은 6월경, 예산은 9월까지 처리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서울반출이 가능하다. 또 대정식품은 도지사 관할로 되어있는데 머지않아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생산자 : 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특급도계장시설가능업체가(전국)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특급도계장 시설이 된 곳은 1,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5월 16일까지 몇 군데나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도 : 현재 경기도관내 도계장이 22곳인데 대부분이 특급도계장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 도계장들은 계속 시설을 보완 중이며, 5월 16일까지 10곳 이상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 공업배치법 등에 걸려 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해결



정부관계관과
생산자 대표가
모여
5.16 이후의
도계유통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5.16까지 해결이 불가능한 도계장중 보완의사가 미온적인 도계장을 제외하고는 6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될 경우 성수기시에도 물량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 부산지역은 최근 20%정도가 양계업을 그만두었다. 현행법의 시행유보를 할 수는 없는가.

농수산부: 가축위생처리법은 실무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을 위촉하는등 다각적으로 검토되었다. 일단 만들어진 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법은 시행이 안되었을 뿐 전부 터 있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생계 선호 경향이다. 밀도계가 50% 이상이라 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뿐 아니라 수요·공급량을 추정하는 데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작년봄부터 도계유통이 본격화되고 불가식부위 기준과 특급도계장 시설기준이 마련되었다. 도계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도계품을 정부가 보장하여 소비자에게 확고한 신뢰감을 줄때 도계유통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자유화되어가고 있는데 축산물 수입은 농수산부에서 막고 있다. 그러나 88년에 가면 버

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일무사하게 지나칠 수는 없다.

작년 11월16일 공포후 금년 5월까지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금년 성수기 전에 시행해야 내년도에 가서 어느정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포장시 반드시 냉각상태에서 포장하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미비점은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보완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 닭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은 30%도 채 안되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도계장에서 물량 반출시 용도, 행선지, 수량을 표시해서 시도별로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

한편 법시행에 있어 너무 강력하면 제대로 나올 닭고기가 극히 적으며, 유통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서울시: 기본운영방침은 농수산부와 같다. 도계유통 정착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것인만큼 생산자가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현재 밀도계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여러분도 책임의식을 갖고 생계발견시마다 수시로 신고해주었으면 좋겠다. 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시행할 것이다.

생산자: 닭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품질이 믿을 만해야 한다. 계육을 5℃ 이

하로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냉동실 20평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생각해볼 문제다. 또 과거에는 닭 채화시 가격이 하락했는데 요즘은 체화 안돼도 하락하는 등 생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법시행에 있어 생산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지역 물량의 대부분이 경기도 관내 도계장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굳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이다. 동일 권역으로 묶을 수는 없는가.

농수산부: 시설보완 문제는 아까 말한바와 같으며 5℃ 이하 포장처리 문제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서울·경기 동일권역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며 업무에 참고 하겠다. 동일권역화될 경우 경기도 관내 특급도계장 이외의 도계품도 자동적으로 서울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역 도계장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생산자: 5.16 이후 물량이 특급도계장에 몰리게 될텐데 도계우선순위에서 자가도계를 먼저 하고 위탁도계를 뒤로 미룰 우려가 있다. 자가 도계는 주간에 하고 위탁도계는 주문시 즉시 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농수산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냉동처리시설이 갖춰지면 주야간 작업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在>